

중공중앙 판공청

〈전국 당정지도부 건설 계획 요강 (2024 — 2028 년)〉 인쇄발부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전국 당정지도부 건설 계획 요강 (2024—2028 년)〉(이하 〈계획 요강〉)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지구,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참담게 관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 요강〉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둘러싸고 2024 년—2028 년 전국 당정지도부 건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각급 당정지도부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는 지도성 문건이다.

〈계획 요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충실히 실천하고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를 확고히 관찰 실시하며 시대의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집단을 건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유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두가지 수호’에 초점을 맞추어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정치적 충성을 확고히 다지고 정치능력을 제고하며 민주집중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힘을 모으고 당의 혁신리론

으로 정신을 무장하여 배움과 사고를 관통시키고 지식과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도부의 력량을 강화하고 제 1 인자를 중점적으로 잘 선발하며 연령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공 구조를 개선하며 원천, 경력 구조를 보완하고 우수한 젊은 간부 양성 선발 상시화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녀간부, 소수민족간부와 당외간부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현대화 건설 지도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시키고 직무수행 능력 훈련을 강화하며 실천단련을 강화하고 투쟁정신과 투쟁능력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주는 책임을 갖도록 격려하고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책임, 작용, 격려와 보호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엄격한 기조로 기풍을 바로잡고 규율을 엄숙히 하며 진실하고 실무적인 작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당풍정령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계획 요강〉은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본 지역과 본 부문에서 요강을 수행하는 책임주체로서 제반 임무의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유엔, 중국이 제안한 문명대화의 국제일 설립 결의안 채택



7일, 제 78차 유엔총회는 중국이 제안한 문명대화의 국제일 설립에 관한 중국의 결의안을 합의하여 채택했다.

결의는 모든 문명의 성과는 인류사회의 공동재부임을 명확히 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창도하면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며 공동진보를 실현함에 있어 문명대화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결의는 또한 서로 다른 문명간의

평등 대화와 상호존중을 제창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조의 핵심 의의를 충분히 구현했으며 6월 10일을 문명대화의 국제일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 부총은 결의안 초안을 소개하면서 “이는 다자주의와 유엔 업무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와 100년 대변화 국면에서 중국의 대국적 책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신화넷

◀ 6월 8일, 사람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 2회 ‘문화중국·케이프타운 동주축제’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

국제시평

남해 정세를 교란하는 미 ‘항행의 자유’ 진상은 ?

“항행은 ‘횡행’이 아니며 자유란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3 회계년도 ‘항행의 자유’ 보고서를 겨냥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에 중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29건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도전했다.

최근 몇년 동안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도처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최고의 명분’이 됐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의 인애초와 황암도 해역 무단 침입, 미국·일본·필리핀이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어 남해 문제를 구실로 중국에 대해 무리한 공격을 하는 등 매년 사건의 마후 조종자로서 미국은 번마다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곤 했다.

유엔과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개념이 다르다

똑같이 항행의 자유라고 부르지만 〈유엔 해양법 공약〉(이하 〈공약〉)에서 규정한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각국이 누려야 할 공정한 해양 권의 수호와 세계 해양 질서 수호를 출발점으로 삼고 후자는 미국의 군사외교 리익 보장 및 미국의 해양 패권 수호를 출발점으로 한다.

또 〈공약〉을 살펴보면 영해, 전속경제구, 공해 등 해역에 대해 상응하는 항행 제도를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해는 일반적으로 12해리, 전속경제구는 200해리까지 달할 수 있으며 공해는 국가 전속경제구, 영해, 내수(內水) 또는 군도국(群島國)의 군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해역을 말한다.



▲ 해남함이 위치한 남해 모 해역에서 상륙 훈련을 전개하고 함재 직승기가 연속 여러 차례 리착륙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공약〉은 외국 선박이 영해를 무해(無害)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연해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전을 해쳐서는 안되며 전속경제구에서 항행의 자유를 가지지만 반드시 연해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권리와 해양과학 고찰, 환경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관찰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목할 것은 〈공약〉은 연해국의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해국은 유해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해국은 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군함에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란 또 어떤 것일까? 미국의 눈에 ‘영해 밖은 전부 공해’이며 이를 위해 ‘국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개념에 따르면 200해리 전속경제구내에서의 미국 군함과 상선의 절대적인 자유 항행은 물론이고 연해국의 12해리

안에서도 무해 통과라는 명목으로 ‘비합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다.

이같이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와 〈공약〉이 규정한 ‘항행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공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이른바 ‘과도한 해양 주장’으로 도발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식 ‘가짜규칙’으로서 세계 해양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관찰자’에서 ‘관여자’로, 패권의 손 남해 교란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항행의 자유’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까지 총 60개 이상 국가에서 600차례 이상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했고 700개 이상의 이른바 ‘과도한 해양 주장’에 도전했다.

오바마행정부가 2009년과 2012년

각각 ‘아시아·태평양 북귀’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남해 정책은 기존의 ‘관찰자’에서 ‘관여자’로 바뀌며 남해 문제를 빌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2017년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해군·공군은 남해지역에서 빈번히 도발을 감행했고 서방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남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선언하고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 작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처럼 미국은 남해가 무사 평온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든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 수로 안전 유지와 해상무역의 번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미국의 안보 리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도구일 뿐이다.

/ 국제방송

주중 외국사절단 :

산둥, 유교문화·해양경제 등 활력 넘치는 곳



▲ 5일, 주중 외국사절단이 산둥성 곡부에 위치한 공자묘와 공부(孔府)를 방문했다.

/ 신화넷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교 풍습에서 중화문화의 심오함을, 구불 구불 이어진 해안선에서 해양경제 발전의 활력을 엿볼 수 있었다.”

록색경제의 혁신이 끊이지 않는 산둥성을 최근 외국인방문단이 찾았다.

5일부터 8일까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웨남 등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온 10여명의 주중 외국사절과 대표들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산둥성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산둥지역의 산과 바다의 웅장한 기상을 몸소 체험하고 유가문화의 깊은 저력을 느끼며 새로운 분야·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더 많이 모색했다.

6월의 곡부는 쾌청하다. 곡부 공자묘의 고목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사절단은 길 량쪽에 있는 100년이 넘는 고목을 따라 사당 깊숙이 들어가 중국 선현의 천년의 지혜를 깨닫고 리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자사상은 인류 문명의 넓고 심오함을 보여준다.” 주중 아르헨티나 대사 마르셀로는 “문명은 공존으로 인해 조화롭고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가 동쪽으로 해안도시 산둥성 연태시를 향해 질주하자 사절단의 눈앞에는 푸른빛이 펼쳐졌다. 해안선이 굽이치는 산둥성은 무한한 생태 어업의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서양에 린접한 모로코도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최대 어류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정어리 수출국이다. 주중 모로코 대사 안사리는 각국의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어업 및 양

식에 관한 시장 발전 공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이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해양어업의 증산과 변혁을 모색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전략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론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중국 기업과 신흥기술 분야 협력 기회를 더 많이 모색하기 위해 왔다!” 동방전자회사를 방문하면서 주중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 카심 거슬란이 포부를 밝혔다.

카심 거슬란은 동방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디지털 배전(配電) 단말(终端) 프로젝트를 실시해 현지의 전력 스마트화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방전자회사 직원들과 워킹 친구관계를 맺었다. 카심 거슬란은 “산둥에 머물러 머물면서 량국 기업간 협력을 더욱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에너지 동력 시스템, 스마트 배전 기술, 해양 장비 제조, 해양자원 종합 개발... 산둥의 녹색경제와 해양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리해하는 것은 주중 외국사절들의 이번 방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 주식유한회사 래복사해양공정유한회사 연태기지의 공장 부두를 방문한 마르셀로가 감탄하며 말했다.

/ 신화넷



한국서 귀국한 참대곰 ‘푸바오’, 대중에 공개

한국에서 귀국한 참대곰 ‘푸바오’(福宝)가 2개월여의 격리 검역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12일 중국참대곰보호연구중심 와룡 신수평(神樹坪) 기지에서 대중에 공개되었다.

‘푸바오’는 중한 참대곰 협력 교류 성과 가운데의 하나이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한국에 가서 15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시작한 아이바오(爱宝)와 러바오(乐宝)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난 첫 참대곰이다.

〈멸종위기 동물 보호 공약〉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참대곰은 교배 적령기인 4살 이전에 중국에 반환된다.

‘푸바오’는 2024년 4월 4일 중국과

한국의 공동 보호 속에서 사전성 성도에 도착했다.

사진은 12일 ‘푸바오’가 축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 신화넷

